<토론요지>

「기호유학의 특질:호락(湖洛)논변을 중심으로
-율·우벽립(壁立)과 종지(宗旨)에 대한 지수와 변통-

이봉규 (인하대 교수)

1. 논지

곽신환 선생님의 발표문은 크게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간재(艮齋)의 「율우종지(栗尤宗旨)」를 매개로 율곡의 「인심도심설」과 우암의 "심시기(心是氣)"론 및 대의(大義) 사업에 대하여 특징을 논하고 후대의 평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호학파에서 호락 사이의 견해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율곡과 우암을 종지로 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한수재 문하와 농암 문하 사이에서 전개된 호락논쟁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호론은 남당과 병계, 낙론은 외암과 도암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화서와 간재를 중심으로 무명자 윤기, 한주, 담헌, 운창(芸窓) 박성양, 회당(晦堂) 장석영, 혜강 등 남인과 서인 학자들의 호락논쟁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락논쟁의 성격을 각자의 신념에 입각에 그 신념에 부합하는 전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철학 논쟁으로 그 성격을 설명하였습니다.

2. "심시기(心是氣)"의 맥락

발표문에서 심(心)을 이(理)와 기(氣)에 연관해서 볼 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심즉리(心卽理, 한주), 심합이기(心合理氣, 동춘당, 졸수재), 심시기(心是氣, 우암), 심즉기(心卽氣, 남당) 등 여러 입장이 있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우암의 심시기(心是氣)론은 율곡의 기자이(機自爾)설과 더불어 당시 영남학파 학자들에게 이학의 본령에서 어긋났다고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암은 심시기(心是氣)를 왜 주장하였을까? 발표문에서 밝힌 맥락을 보충하여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송자대전』을 통해볼 때[1], 우암은 북계 진순(陳淳)이 심(心)을 "이와 기가 합해 있

1) 『宋子大全』 卷101, 「答鄭景由」(丁巳二月二十三日); 卷104, 「答金直卿」(仲固, 丙辰三月二十七日);

어 허령(虛靈)한 것이다.(理與氣合, 所以虛靈.)"라고 한 설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련해서 심시기(心是氣)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理)와 기(氣)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심시기의 기는 순수한 기가 아니라 이를 갖추고 있는 기입니다. 둘째 허령(虛靈)은 이(理)의 범주가 아니라 기(氣)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허령은 이(理)의 속성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마음이 허령한 가운데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맥락에서 심시기(心是氣)를 말합니다. 우암은 허(虛)가 이(理)가 아니라 심이 허(虛)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암은 "허령만 말하고 성정을 빼놓으면 물이 없는 물이 없는 빈 그릇이 되고, 반대로 성정만 말하고 허령을 말하지 않으면 담길 곳이 없는 물이 된다(只言虛靈而不言性情, 則是無水之空器也; 只言性情而不言虛靈, 則是水無盛貯之處也.)"[2]라고 말합니다. 주자는 허령을 기(氣)가 정상(精爽)할 때 지니는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우암의 심시기(心是氣)는 주자의 이 설명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암의 주장은 주자나 율곡과 다른 견해인가? 또는 동춘당과 다른 입장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평자의 우견으로는 심시기가 제기되는 맥락에서 보면 차이가 없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개념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낸 점에서 이학에 대한 정합적 이해를 진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곽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미발에 대한 견해에서 주자, 율곡, 우암은 동론인가 이론인가?

호락논쟁이 핵심이 되는 쟁점은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발은 순선한가? 둘째, 심체로서의 미발, 곧 치우침이 없이 허령한 마음은 성인뿐 아니라 범인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셋째, 본성으로서의 이(理)는 인간뿐 아니라 만물에 동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인가? 발표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수재와 농암 문하에서 전개되었던 호론과 낙론의 견해를 밝혀주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주자, 율곡, 우암은 두 쟁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계의 연구도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문제에 대하여 쟁점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평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자는 미음의 본원을 함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발을 치우침이 없는 중정한 마음으로 곧 온갖 이치가 치우침이 없이 빼곡하게 충만해 있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단순히 희노애락의 칠정이 발동되기 이전 청탁수박이 유만부동한 마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은 본연의 성이 청탁수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갖추어진 순선하고 중정한 마음으로 대본(大本)이 됩니다. 이러한 대본은 정통한 기를 타고난 존재, 곧 인간인 이상 모두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

권105, 「答沈明仲」(戊午九月) 외.

2) 『宋子大全』 卷104, 「答金直卿」(仲固, 丙辰三月二十七日).

다. 이점은 율곡도 명확하게 언급하였고, 우암이 율곡의 견해에 대하여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 가치 쟁점에 대해서는 주자, 율곡, 우암이 동론의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학의 근본 취지는 동론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수재와 농암 측 사이의 견해 차이로 설명하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개념을 명료화해갈 때 어느 한 쪽으로 판정될 수 있고, 해야 하는 문제처럼 생각됩니다.

발표문에서는 우암과 한수재가 명청교체의 상황에서 인간과 금수의 구별을 중시하였고, 한원진에게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원진의 호론은 곧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가치 지향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암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금수를 본성에서 구별하는 친호론적 입장이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론을 주장한 농암 역시 인간과 금수의 구별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물성론과 시대 상황에 대한 대처는 서로 구별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곽선생님은 호락논쟁을 철학 논쟁으로 규정하시고, 상이한 가치 지향을 담고 있어 어느 한 쪽으로 판정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색과 맥락을 잘 읽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양측의 견해가 근거하는 전거와 논리, 그리고 가치 지향을 정합적으로 읽어서 조선후 사상사의 중요한 문양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류사에서 이학이 가지는 학문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학문성을 규명하고 드러내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류사상의 한 자락으로서 이학의 학문성은 가치 지향의 건강함이나 선함만으로는 획득되지 않습니다. 평자의 우견으로는 이학의 전개를 불명확한 개념과 경험을 체계화하고 명료화해갔던 역사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한 방향은 인륜을 수행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학이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념과 방법들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개선하고 대체해가면서, 개념이 정교해지고 변화해갔던, 일종의 개념의 건축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과 실천의 역사였습니다. 개념 체계의 조직화와 명료화가 곧 이학의 학문성이 획득되는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명료화해가는 과정에서 이학의 개념이 안고 있던 한계와 모순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하면서 전진해간 역사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이르러 호락논쟁의 쟁점에 대하여 개념을 명료화하는 논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모적인 진영 대립으로 또는 말류의 폐단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이학의 생명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학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적 특색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곽선생님께서 호락논쟁과 관련해서 주자, 율곡, 우암의 견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19세기 주변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